

알수록 빠져드는 선조들의 해학과 지혜

우리문화의 수수께끼

주강현 지음



삼척시 원덕면 신남리 해랑당에는 남근이 모셔져 있다. '큰 당'이라 불리는 서당당이 있고 바다로 향한 곳 부리에 '작은당'이라는 해랑당이 있다. 이곳에서는 매년 2회에 걸쳐 제가 올린다고 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설화가 전해지고 있다.

아주 먼 옛날, 마을 젊은이들이 배를 타고 섬으로 나가 조개를 잡았다. 그러다 풍량이 일어 급히 돌아왔지만 한 처녀만이 배를 타지 못해 죽게 된다. 이후로 마을에서는 젊은 남자들이 죽어간다. 무당은 향나무로 남근을 꺾어 처녀의 혼을 달래라고 조언한다. 그렇게 해서 마을에 해랑당이 생겼고 예쁜 처녀를 그림으로 그려 여서남으로 모신다. 뒤로는 무탈하게 됐다는 얘기가.

해랑당의 남근신앙을 오늘날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우리에게 남근 신앙이 남달랐던 것은 조선시대 유교적 덕목인 남아선호 풍습과 연관이 있다.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이 여자만의 문제만



1950년대 후반 프랑스 다큐멘터리 작가 크리스 마커가 촬영한 폭두극. <서해문집 제3권>

은 아닌데 말이다. 그것은 '사회적 강제'와 맞물린 가부장적 사고에서 비롯됐을 것이다.

우리문화의 다양한 모습과 생활문화, 풍습 등을 특유의 시각으로 맛깔스럽게 풀어낸 책이 출간됐다. 제주대 석좌교수 주강현이 펴낸 '우리문화의 수수께끼'는 한 권으로 들여다보는 우리 문화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 "도깨비 없이 태어난 세대를 위하여"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디지털 세대로 일컫는 오늘의 세대들에게 전해주는 우리문화에 대한 백과사전

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그동안 '역사과학으로서의 민속학'을 이 땅에 뿌리내리는 역할을 해온 민속학자다. 주강현이라는 이름이 일반인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95년 중앙의 일간지에 '우리 문화의 수수께끼'라는 글을 연재하면서다. 이듬해 묶어낸 책인 '베스트셀러로 자리잡았고 '우리 문화 교과서'라는 찬사가 잇따랐다. 이번

에 발간한 책은 기존의 내용을 다소 수정하고 사진도 대폭 교체한 개정판이다. 특히 전국의 현장, 박물관, 저자의 아카이브

에서 찾아낸 방대한 시각 자료 500여 컷이 담겨 있어 보는 재미도 만만치 않다.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전통시대의 성담론이다. 남근바위와 여근곡에 얽힌 풍속사, 혁명 도는 구멍의 아이론 배꼽, 성적 제의와 반란의 곳, 쌍옥과 속떡으로 풀어진 성에 빚낸 야유는 우리 문화들이 하나의 줄기로 엮여져 있음을 간파한다.

저자는 금줄, 무당 등의 샤머니즘적 원형도 이야기한다. 단순한 금줄에도 왼쪽 새끼줄이 신성하게 여겨지는 이유 등 샤머니즘적 의례문화 등 오랜 전통을 되새김한다. 그러면서 오늘날 거리극 등에서 열정적으로 펼쳐지는 집단 행위에는 사민주요가 투영돼 있다고 본다.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인 장승과 하늘로 비상하는 솟대, 돌하르방 등은 우리 문화의 상징이자 아이콘이다. 저자는 이들 아이콘은 한반도에만 있는 것이 아닌 시베리아부터 아메리카 원주민에 이르기까지 세계적인 공통 문화라고 설명한다.

일상의 생활사도 면밀히 들여다본다. 현대 건축에서도 여전히 각광받는 구들, 식생활의 근간인 된장, 공동체 삶의 집결체인 두레를 통해 농촌의 삶과 우리 문화의 우수성도 이야기한다.

책을 관통하는 일관된 논지는 바로 범고조선(法古朝鮮)의 원칙이다. 이렇듯 오늘날의 관점에서 옛것을 늘 새롭게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서해문집> 1만98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밥 먹여주는 인문학**=이 책은 유명한 철학자들의 생각을 통해 오늘날의 현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문학 안내서이다. 저자는 인문학이 결코 멀고 높은 곳에 있는 고상한 사람들의 생각이나 소유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녹아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이 책은 인문학이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학문이 아니라 일상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고, 현실문제에 대한 깊은 성찰과 함께 올바른 삶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게 해준다. <아침포> 1만4500원

▲**죽도록 일하는 사회**= 2018년 세계는, 특히 한국은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룩하며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다. 소득은 늘어났고, 경제 규모도 커졌다. 뛰어난 IT 기술력이 편리한 생활환경을 선사하고, 각종 상품과 서비스가 이를 뒷받침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많이, 더 오래 일하고 있다. 노동을 덜어주리라 예상했던 온갖 기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그 기대는 보기 좋게 어긋났다. 이 책은 현 사회에 만연한 노동문제 특히 '장시간 과노동' 문제를 파헤친다. <지식이행> 1만5000원

▲**농촌은 사라지지 않는다**=농산촌을 직접 밭로 뛰며 그곳을 여러 차례 방문하며 지역 문제를 연구하고 있는 저자 오다기리 도쿠미는 지금까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열심히 지역 만들기를 해온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추산으로 특정 시정촌을 '소멸 가능성 도시'라 단정 짓고 이름 붙인 '지방 소멸



론'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다. 그는 단편적인 사실만으로 지방과 농산촌에 대해 전망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방 소멸론'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낱말이 파헤친다. <한울아카데미> 2만6000원

▲**죽은 자들의 도시를 위한 교향곡**=이 책은 '레닌그라드 전투'와 '교향곡 7번 레닌그라드'의 탄생에 초점을 맞춘 소스타코비치의 평전이자 역사서이며, 한편으로는 무너진 세상을 위로하고 일으켜 세우는 음악의 힘을 예찬하는 예술서다. 소설가이자 고전문학 칼럼니스트인 저자의 해박함과 치밀한 조사, 유려한 문체가 빛을 발하는 역사작으로, 소스타코비치와 그 가족들, 당대의 일상,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예술계와 문화계, 참혹한 전쟁의 모습 등을 생생히 보여 주는 도판 130컷을 수록했다. <돌베개> 2만2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알아주는 사람**=이 책에는 '알아주는 사람'과 '별뿔비 내리는 밤' 두 편의 동화가 실려 있다. '알아주는 사람'은 마법 같은 풍경의 변화를 발견한 아이가 주변을 다시 살피며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구해가는 과정을 그렸다. '별뿔비 내리는 밤'은 '똥'이라는 낱말에 꽂힌 아이가 별과 똥에 관한 갖가지 재미난 상상을 펼쳐다가 정작 별뿔비 내리는 밤하늘을 보며 마음이 고요해지고 '아름다움'에 사로잡히는 이야기다. <우주나무> 1만2000원

▲**탈이 좋아**=동화책 속 주인공은 엄마 아빠가 부럽다. 엄마는 깊은 물을 두려워하지 않고 맛있게 수영하고 깊이 모르모라 나는 맛있는 빵을 만들 줄 안다. 아빠는 강아지 사료를 번쩍 들어올릴 수도 있고 커다란 트랙도 손쉽게 운전한다. 그런데 나는? 강아지를 태운 자전거도 끌기 힘들고 공기를 뿔뿔하게 채운 튜브가 있어도 물이 무섭다. 이렇게 나는 어려운 것투성이인데 엄마 아빠는 어쩔 저렇게 척척 해내는 걸까? <바람의 아이들> 1만2000원

▲**호기심 나라 오기도 휴일에는 떠나**



요! = 어디든 떠날 수 있는 신나는 휴일, 휴일에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일들을 담았다. 커다란 초록색 가방을 끌고 나타난 메시, 오늘 밤은 마당에서 잠을 잘 계획인 짐, 짐, 짐, 엄마와 함께 런던으로 여행을 떠난 지나, 다람쥐 소년의 방학생활 등 오기도 친구들의 휴일 이야기와 모든 것이 가능한 휴일, 무엇을 하며 놀지 다양한 내용을 보여준다. 오기도 친구들이 보내 온 멋진 그림, 여우를 숨긴 재미있는 사진, 그리기와 색칠 놀이, 미로 게임도 수록돼 있다. <문학수첩 리틀북> 1만 원

목포 덕인집·여수 41번집...한 시대를 담은 식당

노포의 장사법

박찬일 지음

'한 입 베어 물면 입 안에 한 시대가 들어오는 듯한 식당.'

'추억의 절반은 맛이다', '백년식당' 등의 저자 박찬일이 묘사한 '노포(老舖)'의 정의를 읽으며 고개가 끄덕여졌다.

'글 쓰는 셰프' 박찬일의 신작 '노포의 장사법'은 50년 이상 이어져온 식당들이 어떻게 세월을 이기고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는가를 살펴본 책이다.

솔한 사연을 담고 있는 식당들의 이야기를 '애호가들의 추억에만 남겨두지 말자'고 생각한 저자는 사진작가 노중훈과의 기특함, 3년간 전국을 샅샅이 훑어 노포를 찾아내 입주들에게 생생한 이야기



를 들었다.

책에는 서울을 비롯해 여수, 목포, 수원, 대전 등 전국의 노포 26곳의 이야기가 담겼다.

1940년 창업한 서울 팔판동 '팔판 정육점'은 한 재벌 기업이 80억원에 팔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오는 곳이다. 한 때 전국 소시집에서 가장 큰 손으로 불렸던 창업주는 아들에게 가게를 그냥 대물림하지 않고 액수를 매겨 돈을 가져오게 한 후 물려줬다. 지금은 미국에서 MBA를 한 손자가 합류해 3대째 76년을 이어오고 있으며 오랜 신뢰를 바탕으로 우래옥 등 유명 식당과 창업 때부터 거래를 이어오고 있다.

그 맛이 너무도 간결해서 오히려 도저히 흉내낼 수 없다는 '곰탕'으로 유명한 서울 하동관은 1939년 창업 후 하루에 딱 500그릇만 파는 식당으로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우리 지역에서는 목포 덕인집에 대한 이야기가 실렸다. 문을 연 시기가 1980년 대로 책에 등장하는 여타 식당에 비해 짧지만 덕인집은 진짜 흑산도산 참돔으로 만든 흥어삼합과 흥어찜으로 명성을 얻었다. 민어찜, 병어회 등 계절 음식도 그 만이다. '여수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연등천 포항마차촌의 '41번집' 역시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이곳의 인기 메뉴는 생선 군편선이(쌈치방고기)와 노랑가오리·덕자·삼치가 나오는 '선어모듬'.

그리고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내는 메뉴'들이다. <인플루엔셜> 1만68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그밖에 책에는 국내 최장수 60년차 주방장이 근무하는 '서울 조식숙', 저자가 'B급 미식의 정점'이라 부른 떡볶이로 이름 높은 40년 역사의 서울 '송덕분식', 강릉의 '토박이 할머니 순두부' 등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저자가 찾아낸, 노포가 살아남은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맛이다. 거기에 운도 따라야 한다. 그 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한결같음'이다. 사소할 것 같은 재료 손질, 오직 전래의 기법대로 내는 일품의 맛이 그것이다. 거기에 손님들의 호응으로 생기는 연대감 같은 것이 더해진다. 또 직원들에 대해서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별나서 몇십년째 다니며 고화와 팔손을 넘기는 종업원이 많은 것도 오래된 가게의 특징이다.

책 속에 등장하는 가게들은 한 식당의 이야기를 넘어선다. 한 시대를 세밀하게 보여주는 풍경이자 역사다.

<인플루엔셜> 1만68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신축 원룸매매

전대 정문 2분

총 4층건물

(원룸 13개, 투룸6개)
4층(안집)-최고급시설

보7천만 월수익 700만

매가 : 12억 8천
(응 3억5천 가능)

- ① 산정동 (1층코너 상가)(원룸 15개) (합16개) 월세 500만 ▶매가 8억3천
- ② 산정공원바로앞(코너)1층상가(2개)원룸(12개) 4층(최고급주택)월세 550만 ▶매가 9억5천만
- ③ 월곡동시장 2분 (4층 원룸상가) (원룸12개.투룸2개)총 14개 (월수익 550만) ▶ 매가 8억5천만

주인직매 010-6670-9800

신축 건물 매매

월산동 3층 건물

월수익 900만

매가 : 22억
(응 1억 보 1억4천)

- ① 상무지구 6층 상가 월 수익 50만 ▶매가 8천만
- ② 남구 진월동(4층 상가건물)▶매가 5억
- ③ 경기도 평택시 신장도(오피스텔 개발부지) 토지 53평 건물 222평(건축허가완료) 개발시 순수익 10억 ▶ 매가 9억

010-6670-9800

법률 경매 (주)대신경매

1) 남구 주월동 (4층 상가주택) 토 71평 건 179평 ▶감정가 4억5천 → 최저가 4억5천	5) 남구 진월동 (5층 상가주택) 토 73평 건161평 감정가 6억3천6백 → 최저 6억3천6백
2) 서구 화정동 (5층 상가빌딩) 토 125평, 건 460평 광주 새우리병원 앞 (코너) ▶감정가 13억2천 → 최저가13억2천	6) 북구 문흥동 (3층 원룸) 토 57평 건 101평 감정가 3억46천 → 최저가3억46천
3) 서구 쌍촌동 (3층상가주택) 토 90평, 건 107평 ▶감정가 6억 → 최저가 6억	7) 북구 운암동 (2층 상가주택) 토 37평 건142평 (서강정보대 1분) 감정가 1억2천 → 최저가 1억2천
4) 화순 도곡면(무인텔) 토 3,289평, 건 3,278평 객실 32개(월수익 5,000만 예상) ▶감정가 37억 → 최저가 13억4천	8) 상무지구 세정아울렛 (3층) 감정가 3억 → 최저가 2억9천
	9) 서구 내방동 (4층 상가주택) 감정가 5억3천 → 최저가 5억3천
	10) 북구 용봉동 (12층중 7층상가) 감정가 6억7천 → 최저가 3억7천
	11) 남구 주월동 (마트) 토 108평 건 83평 감정가 14억6천 → 최저가 14억6천

A.P.T	주택	토지,기타
① 서구 평안동 주은아파트 (2평) 감정가 1억9천 → 최저가 1억9천	⑥ 북구 중흥동 (주택) 토지 33평 건물 17평 감정가 9천 → 최저가 8천9백	⑩ 광진구 하남동 (대지)107평 감정가 10억5천 →최저 10억5천
② 서구 내방동 내방주공아파트(2평) 감정가 2억1천 → 최저가 1억9천	⑦ 광진구 월계동 (2층주택) 토지 88평 건물 70평 감정가 2억5천 → 최저가 2억5천	⑪ 서구 용암동 (농지) 300평 감정가 6억9천 → 최저 3억9천
③ 서구 화정동 대우아파트 (2평) 감정가 1억4천2백 → 최저가 1억4천	⑧ 남구 주월동 (주택) 토지 40평 건물 42평 감정가 1억 → 최저가 1억	⑫ 북구 용암동 (농지) 270평 감정가 4억1천 → 최저 4억1천
④ 광진구 신동 신기마을 (2평) 감정가 2억 → 최저가 1억4천	⑨ 북구 용암동 토지 37평 건물 26평 감정가 1억 → 최저가 1억	⑬ 동구 용산동 (농지) 883평 감정가 1억7천5백 → 최저 1억7천5백
⑤ 동구 용암동 관아아파트 (2평) 감정가 1억9천 → 최저가 1억9천		⑭ 동구 학동 (농지) 102평 감정가 1억2천5백 → 최저가 1억

010-7384-7800 010-6670-9800

경매 교육 (5월초 개강)

- ① 기초실전반 (경매기초 + 기본실전)
- ② 실전투자반 (기초 + 실전 - 매매까지)
- ③ 무료반운영 → (오전·오후)

기초이론부터 ~ 실전투자 리모델링,매매까지 (원스톱강의)

직원구함

- 1) 경매 배우면서 근무하실분
- 2) 경매 컨설팅하면서 수익내실분

평생회원 → 책상,컴퓨터,교육(무료제공)

010-6670-9800